

호토피아

HOMETOPIA

실내분수로 집안 가득 청량감을 — 12

컴팩트디스크에도 알록달록 패션 “바람” — 15



남학생세계에 농구가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국민학생까지 틈만 나면 농구공을 들고 뛴다.

이같은 농구붐은 농구자체의 매력과 더불어 만화·TV 등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도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관심을 끈다.

서울 C 중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에는 농구골대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다. 고교입시를 코앞에 둔 3학년들도 농구에 빠지는 일이 많아 학부모로부터 『제발 우리애 좀

말려달라』는 호소도 듣는다. 고교 교사들은 전한다.

이 학교 全正正(3년)도 시간만 나면 친구들과 농구를 한다. 어머니에게 『3학년이 공부 안 하고 공만 잡느냐』고 꾸중도 술하게 들었지만 『꾸중은 잠깐이고 농구재미는 길다』고 말했다.

『농구 잘하면 근사해보이잖아요. 강백호 같죠』

『강백호』는 일본만화 번역본인 『슬램덩크』의 주인공 이름.

이 만화는 채소연이라는 여자친구가 농구를 좋아한다길래 무작정 농구를 시작한 강백호가 고교 최고의 스타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단행본으로 첫선을 보인 이래 국민학교부터 중고교 앞의 서점마

에 찬론을 폈다.

『한번 공 붙잡으면 일곱시간도 땀수 있어요. 속도감이 빠른 운동이어서 내 몸으로



이는 느낌도 있지요』

金國장은 이같은 농구열기는 남학생들의 패션에도 변화를 몰고왔다고 말했다. 농구화가 평상화로 자리잡았다든가 운동복을 쏙셔넣는 배개모양의 스포츠백이 학생들의 등교가방으로 쓰이는 것등이 그것이다.

사회학자인 金文朝(고려대)는 『농구라는 스포츠의 붐은 우리사회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



드리블...슛...코트마다 초만원

男초중고생 농구熱風

다 베스트셀러로 꼽힐 만큼 인기다.

농구하다가 발목을 빼었다고 절룩거리던 姜相圭(19·학원생)도 농구애기가 나오자 허리를 쭉펴며 농구

전자오락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어요』

이에 대해 한국중고교 농구연맹 金永石 사무국장은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다.

『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스포츠는 축구였다. 『잘 살아보세』의 구호가 지배하던 때는 90분간 부지런히 뛰면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축

만화 TV 영향 “速戰速決의 新가치관”



일본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 남학생사이에 농구붐을 일으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SBS 방송이 매주 방영하는 美國 NBA 농구의 현란한 플레이가 청소년층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농구대잔치가 정착되면서 허재·우지원·문경은 등의 스타플레이어가 스타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켜 『나도 한번 해보자』는 불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이 『오빠』만 외치고 있을 때 남학생들은 직접 『오빠』가 되고자 뛰는 점이 차이이다.

『농구는 다른 구기종목과 달리 혼자서도 밤낮 구분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고상해보

구가 한국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은 순간적인 승부기회가 있는 야구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다. 90분 동안 계속 뛰어야 하는 축구보다 적당한 완급이 있는 야구가 심리적 부담이 덜한 점도 있다.

이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단시간내 최대의 운동효과를 낼 수 있는 농구는 90년대 현대인의 속성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 특히 『속전속결』과 개인플레이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은 혼자서도 빨리 땀 흘리고 금방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농구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金順德)

남학생들이 농구에 열중하고 있다. 「속전속결」과 개인플레이를 선호하는 남학생 사이 손으로 농구가 파고 들어 있다. (安祈民)